



스탠드 설치...공정률 44% 광주 새 야구장 건립 순조

오는 11월 완공 예정인 광주 새 야구장의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관람석 스탠드 설치가 진행되는 등 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내년 시즌부터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으로 사용되는 새 야구장은 북구 입동 무등경기장 축구장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지며, 최대 2만7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고 1130대가 주차

할 수 있는 지상·지하 주차장이 마련된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관람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관중석까지의 거리를 전국 야구장 중 가장 짧은 18.5m로 설계했으며, 바비큐석과 파티플로어, 잔디석, 모래석, 패밀리스 등 4000석 규모의 다양한 이벤틱스도 배치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안철수 출마 노원병 무공천

“범야권 결집 위해 결정”

민주통합당은 25일 안철수 전 서울 대 교수가 출마한 4·24 노원 병 보결 선거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4면> 이는 지난해 대선 당시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안 전 교수가 후보를 사퇴했던 점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향후 야권 연대 및 협력 가능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인 노원 병 지역의 선거 구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지역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무(無)공천 방침을 확정하고 정성호 수석 대변인이 전했다. 정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바로잡고 경종을 울리려면 범야권 결집과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야 한다는 당위와 야권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사

이에서 고민을 거듭한 결과, 야권 전체를 위해 기록권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상 비대위원장도 “안 전 후보와 진보정의당 양쪽에 신세도 같고 야권 연대를 통해 박근혜 정부 초기의 실정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격려가 있었지만 결국 만장일치가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 전 교수는 “민주당 공천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새 정치의 길에서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새 정치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앞서 비대위는 이 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동섭 지역위원장에게 “당의 결정을 이해해달라. 힘을 합쳐달라”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당 일각에서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는 등 적지 않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중앙 종속 자치 훼손” vs “정당정치 기반 붕괴”

다시 불붙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 논란 쟁점만 쟁점

“사실상 국회의원 私薦...정치권 줄서기” “정치신인 진입 막고 무자격 후보 난립”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뜨겁다.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등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또 다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정치권의 기록권 내러놓기 방안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던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단체로 확산하고 있다. 정당공천 폐지론자들은 “정당공천이 지방자치를 망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당공천 찬성론자들은 “지방자치는 정당정치 제도화를 위

한 기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당공천 폐지론자들은 정당공천의 폐해로 중앙정치에 의한 풀뿌리 지방자치 훼손, 정당공천을 둘러싼 부패 등을 꼽고 있다. 종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사적인 이해관계로 사실상 ‘사천(私薦)’을 통해 정치 줄세우기를 강요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물론 광역의원 후보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눈치를 살피고, 총선에서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 노릇을 하는 등 온갖 궂은 일을 하는 폐단을 낳았다. 또한, 중앙당이나 국회의원 등이 연루된 ‘공천 장사’ 사건도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침해되고, 중앙에 속하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당이 후보추천에 관여함으로써 특정정당의 지역배우구조가 공고화되는 폐단도 있다. 유권자의 후보 선택 기준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아닌 후보자의 소속국 재력을 앞세운 토호 세력이 득세 정당이 되는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정당공천제는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는 측면이 있다.

반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찬성론자들은 정당이 대중 저변에 깊숙이 침투할 때 정당참여가 제도화되고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에 정당이 참여하고 정당공천이 허용돼야만 정당정치가 제도화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당내 경선과정을 통해 자질 있는 후보자를 가려낼 수 있다는 점 역시 정당공천제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만약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결국 재력을 앞세운 토호 세력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고, 도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성·장애인 등 정치신인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당이 외형상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내천(內薦)’의 가능성은 여전히 만능 폐해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정과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공천제는 엄격한 도덕적 검증을 통해 무자격 후보들의 난립을 막는 장점과 함께 중앙정치에 지방이 예측된다 한계도 명확하다”며 “결국 우리 사회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성숙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평생 소모품 무상서비스

062)226-0001

Mercedes-Benz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사퇴

박근혜 정부 6번째 낙마

자격 시비 논란을 받아들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25일 전직 사퇴했다. <관련기사 3면> 한 내정자는 국회에서 수년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를 해왔다는 언론보도가 이날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내정자의 사퇴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김중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차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6번째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부실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조세법 전문가인 한 내정자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이후 야당으로부터 낙마 공세를 받아왔다. 그는 우선 삼승 세균탈취 의혹을 받았고 대형 로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것으로 드러나 ‘경제 검찰’의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한 내정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퍼면서 국회 정무위는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한 후보자가 해외에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관련세금을 탈루해온 혐의가 있다”며 “한 후보자가 2011년 국세청의 해외자산 자진신고제도 도입을 계기로 해외 비자금 계좌를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에 한 후보자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여부, 계좌 규모, 계좌 개설 시점 및 개설국가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면서 처명타를 날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ANBANG BIO | 一理

아름다운 태를 빛는 단 하나의 이치

한방 탄력케어 | 일리

보습을 넘어 탄력케어까지!
토탈에이지 바디로션

옛 여인들의 피부관리 비법과 아모레퍼시픽의 수십년간 축적된 한방바이오 과학을 담아 아름다운 태를 현대에 재현합니다